

멈추지 않는 아프리카 선교

2000년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 이후 아프리카 54개국에 성결 복음과 권능이 활발히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근 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깨우치면 사람의 본분을 좇아 살아갈 수 있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려면?

영을 추구하려는 다짐과 함께 마음 안에 영의 것을 채워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공 초월한 기도의 위력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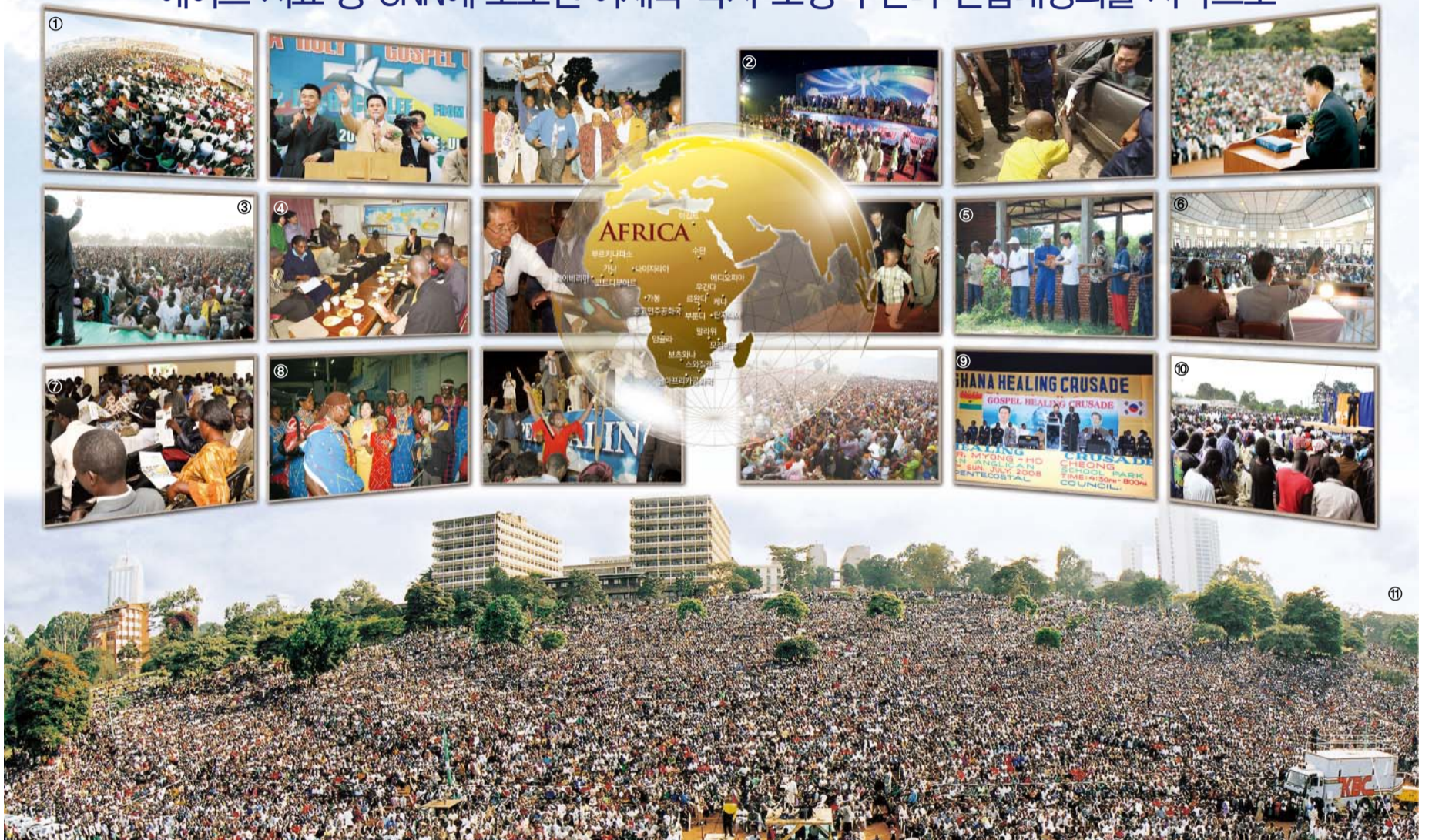
GCN 방송 시청 중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받은 탁재송 성도와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천식과 복부 통증을 치료받은 케냐 메리 멘데 성도의 은혜로운 간증

만민뉴스

제496호 2011년 8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아프리카 54개국에 펼쳐진 권능과 사랑의 손길

에이즈 치료 등 CNN에 보도된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①우간다 연합대성회(2000) ②콩고 연합대성회시 간증행렬(2006) ③수단 손수건 집회(2008) ④케냐 나쿠마트 신우회원들에게 『십자가의 도』 책자 홍보(2010) ⑤부룬디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에 동참한 정명호 목사(2008) ⑥부맴보 목회자 세미나(2007) ⑦만민뉴스를 탐독하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 ⑧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과 함께한 마사이족 성도들(2009) ⑨가나 치유성회(2008) ⑩부시아 손수건집회(2011) ⑪케냐 기독교 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한 케냐 연합대성회(2001)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함성. 많은 사람들이 목발과 지팡이를 치켜들고 단으로 걸어 나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와 찬양 소리가 성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끝없이 간증 행렬이 이어졌다.

23년 동안 걷지 못하던 여성이 걷는 것을 비롯해 선천적으로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진 소녀가 13년 만에 듣고 말하며,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이 보게 됐다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죽음의 병으로 불리는 AIDS를 치료 받았다는 간증도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0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린 '아프리카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는 감동과 환희의 현상이었다.

세계적인 뉴스전문채널 CNN에서는 "한국의 부흥강사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이재록 박사가 우간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01 이재록 목사 초청 케냐 연합대성회(사진 ⑩)'와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콩고 연합대성회(사진 ②)'를 통해서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됐다.

이는 가난과 질병, 높은 문맹률, 종족 갈등과 내전, 식민 통치의 아픔과 에이즈로 물든 아프리카 영혼들

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이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계신다.

최근 8월 11~12일 케냐의 부시아 지역에서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 손수건 집회 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사진 ⑩).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버렸고, 망막이 손상되어 볼 수 없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됐다. 약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시력 회복 간증자가 많았다.

손수건 집회(행 19:11-12)는 아프리카 곳곳에서 수시로 열려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구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매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한편, 정 목사는 아프리카 영혼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만민국제성경대학을 열어 성경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성경대학은 케냐를 비롯해 우간다,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가봉,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민

음의 분량', '영혼육', '창세기', '요한계시록'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패밀리 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아프리카 전역에 방송되고 있으며,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과 '만민뉴스'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사진 ④, ⑦).

현재 만민중앙교회는 수천의 자협력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54개국에 성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활발히 전하고 있다. 아프리카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는 만민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